

SERMONS IN HEBREWS

ch 10:19-39

1. 우리는 미래가 있는 가족입니다.

부활절에 크리스찬 가족은 신약성경 전체에 두루 울림을 주는 의미로 가득한 한 사건을 기념합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영향력은 실제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없이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신약성경에서 사도 베드로의 첫번째 편지는 그런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에게 찬양을 드릴것으로 시작합니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4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산 소망과 썩지 않는 유산과 같은 이런 개념은 다른 동방종교들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입니다. 동방종교들 속에서 여러분이 바랄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런 슬픔의 세상으로 윤회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삶이라는 것이 결국 망각으로 끝나버린다고 하는 비참함이 끝도 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염세적인 시각과는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절망을 비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의 전형으로 봅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죽음을 앞두고 소망이 없는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의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말하는 바 유산을 제공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로 태어 났다고 말합니다. 결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된 유산입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대개 유산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죽을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가족들은 우리가 죽을 때 얻는 유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물론 영생입니다. 이 유산에 대한 중요성은 히브리서를 통틀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9 장 15 절에 저자는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새언약의 중재자이고 부름 받은 자들이 약속된 영원한 유업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4 장에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의 즐거움인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소망에 관하여 언급하였습니다...우리는 놀라운 미래를 가진 가족입니다

저자는 또 우리가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2.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할 뜻을 지닌 가족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영원한 삶을 가능케 하셨다면 우리는 그런 소망을 지녀야 하고 견고히 그것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19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함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0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21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22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주어진 유산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는 일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승전의 결과로 얻은 전리품을 나누는데 참여하지 않았지만 승리를 기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과업에 참여하는 것을 등한히 하는 것이죠.

19 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필전은 런던의 큰 은행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 안에 들어가서 그 은행 건물이 얼마나 대단한가 감탄을 하면서 수표를 테이블에 올려 놓으면서 그게 얼마나 훌륭하게 인쇄가 됐고 서명이 됐는지만을 역설할 뿐, 수표를 실제로 현금으로 바꾸지도 않고 거기서 어떤 업무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얼마가지 않아서 출입이 제지 당할 것입니다. 은행 사람들은 은행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하고만 거래를 하기 원합니다 라고 스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달려들어서 일하려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분과 일을 보려는 뜻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약속을 붙잡았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가끔씩 나는 예수님도 인정한다는 간단한 인사치레 정도로 때우고 마는 종교적 관광객처럼 지내는 것은 아닌지요?

글쎄요 히브리 기자는 그런 약속을 부여 잡을 것을 원합니다. 아주 딱 붙잡기를 원합니다

23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25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읍시다.

하나님과 제대로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려 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를들면 교회를 출석하는 것에 대해 미지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크리스찬 형제 자매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 헌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해합니다. 그런 소망을 부여잡았으므로 그것을 등한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단히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단단히 부여잡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는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26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습니다.

27 남아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뿐입니다.

28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으면 가차없이 사형을 받는데,

29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0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12)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적절한 말로 다 표현하기에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의 혜택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옵니다.

30, 31 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30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 주겠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잠 9:10). 하나님을 가버이 여기는 것은 위험 천만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셋째 항목에 대해 상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3. 우리는 견뎌가는, 곧 견인의 가족입니다.

붙잡은 소망을 놓아 버리는 것에 대해 경고 하는 것이 그의 독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면서도 히브리서의 기자는 또 지난 시절 그들의 꾸준했던 믿음을 기억합니다. **32-34 절**에서 저자는 그들이 얼마나 과거에 잘 해왔는지에 대해 그들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강점인 지난 날의 신실함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꾸준히 계속할 것과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 확보하신 영생의 삶을 수용하라고 재촉합니다.

35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씨름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7.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서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뚜렷한 구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사람들과 믿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관망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나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분에 대해 감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리를 둡니다. 그들은 한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아주 긴밀히 관여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대로 일을 보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의 유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고 단단히 붙잡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만 하는 질문은 나는 어디에 속해있느냐? 입니다. 뒷걸음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된 신자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냥 관심의 대상이나 선망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그는 우리에게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써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함께 성경을 읽고 순종하며 매주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년 내내 삶의 모든 부분 가운데에서 그분을 단단히 붙잡으십시오.